



□ 해외주요뉴스 □

엔데버號, 과학위성분리

美우주왕복선 엔데버號는 지난 1월 13일 일본 과학위성 회수에 성공한데 이어 14일 오전 탑재했던 美항공우주국(NASA) 소속 과학위성을 본체로부터 분리시켰다고 NASA 관계자들이 밝혔다.

NASA측은 과학위성이 엔데버號에 탑승한 일본인 우주인 와카타 고이치씨에 의해 브라질 연안의 대서양 3백20km 상공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다고 말했다.

日, 우주 비행기 연구개발 본격 착수

일본은 美엔데버號에 승선한 와카타 고히토(若田光一) 우주비행사가 위성회수에 성공함에 따라 음속보다 10~20배나 빠른 「스페이스 플레인(우주비행기)」을 본격적으로 연구개발키로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지난 1월 15일 보도했다.

스페이스 플레인은 비행기와 같이 활주로에서 수평으로 이륙해 지구궤도를 선회한 뒤 다시 목적지의 활주로에 착륙하는 우주비행기다.

앞서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前대통령 당시 뉴욕과 도쿄를 3시간에 비행하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계획을 제창해 기초 연구를 계속해왔으나 최근에는 예산난으로 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아르헨, 자체제작 인공위성 年内 발사

아르헨티나는 자체 제작에 처음으로 성공한 천체관측용 인공위성을 올해안에 쏘아올릴 예정이라고 아르헨티나 언론들이 지난 1월 16일 보도했다.

이 나라 언론들은 국립천체연구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사크-B」로 명명된 이 위성은 아르헨티나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미국의

페가소스-XL 로켓에 실려 정지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크-B 인공위성은 지상 5백50km상공의 정지궤도에 3년동안 머물면서 태양계를 비롯한 우주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연구소로 전송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팬암새트, 내년 방송위성 발사

팬암새트社는 오는 97년말에 동경 68.5도의 인도양 위에 PAS-7號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라고 지난 1월 19일 발표했다.

팬암새트는 PAS-7 위성이 현재 인도양상공 3만 5천6백80km 지점에 위치한 PAS-4號 위성과 합류, 아프리카 지역의 위성서비스를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PAS-7 위성은 유럽우주국의 상업적 기구인 프랑스의 아리안스페이스社가 프랑수아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팬암새트는 곧 이 위성의 제작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PAS-7위성은 PAS-4위성과 함께 남아공의 5백만 시청가구에 훨씬 많은 채널의 직접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美 AT&T, 위성방송사업 박차

미국 AT&T가 위성방송업체인 다이렉 TV와 제휴하는 한편 이 회사의 지분 2.5%를 1억3천7백50만달러에 매입키로 하는 등 위성방송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AT&T는 위성방송사업에 진출하고 다이렉 TV는 케이블 TV업계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호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것이다.

AT&T는 향후 5년간 다이렉 TV의 지분을 30%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현재 9천여만명의 장거리 전화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AT&T는 미국 의회의 통신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이 시장에서 지역벨트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판단, 위성방송사업을 장거리 전화와 연계시킨다는 전략아래 올 여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성방송과 장거리-지역전화, 무선통신을 통합, 서비스함으로써 경쟁력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에서 위성방송 서비스개시 1년반만에 1백 25만의 유료가입자를 확보하며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다이렉 TV도 이번 AT&T와의 제휴를 통해 자사 서비스망 개척에 더욱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日-獨, 소형 위성 공동개발

일본 통산성이 독일의 독일우주기관(DARA)과 손잡고 신형인공위성을 공동 개발한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日통산성은 지난 1월 24일 발표한 새로운 「우주개발 정책요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곧 독일의 DARA와 소형 인공위성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계약」을 체결, 5년후 완성을 목표로 저가형 소형 인공위성을 공동개발할 계획이다.

이 요강에는 위성부품의 공유화를 적극 추진중인 미국과 유럽업체들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일본 위성 가격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日, 우주기술 상업화 착수

일본은 자체 개발한 H-2로켓의 성능혁신을 포함한 야심적인 10개년 우주계획 청사진을 지난 1월 24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청 산하 자문기구인 우주활동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청사진에서 지난 94년 2월 첫 발사에 성공한 H-2 우주선발사용 로켓의 성능을

「향상, 개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노력을 기울일 경우 지금의 절반가격으로 2배의 중량을 적재할 수 있는 개량형 H-2 로켓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활동위원회는 또 정부가 지구탐사와 임무시범을 위한 새로운 2개 시리즈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수평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우주 비행기」와 달탐사를 위한 「궤도 전환우주선」의 개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년간 이뤄진 3차례의 H-2 로켓 발사 성공을 들어 『일본이 우주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일본은 이제 21세기를 맞아 우주활동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기술을 군사용에서 상업용으로 전환하고 있고, 유럽과 중국도 상업적 우주활동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일본도 우주개발의 중요성을 재인식, 우주활동의 민간 이용과 국제적 협력이라는 세계적 조류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독, 中 전역에 위성 TV網 개설 발표

언론재벌 루퍼드 머독의 현재 진행중인 합작계약에 따라 중국 전역에 위성TV網을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뉴스위크」誌가 지난 2월 4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2월 12일자에 이 계약으로 중국 CCTV는 머독소유의 홍콩소재 스타TV가 갖고 있는 아시아셋 2호 위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시아셋社, 통신위성 3號 97년 발사

중국에 지원하는 홍콩의 위성사업 컨소시엄인 아시아셋社는 미국 휴즈社로부터 통신위성을 공급받아 97년말까지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아시아셋社는 이 「아시아셋 3호」위성 발사를

위해 JP 모건, 후지, 파riba은행 등으로부터 2억2천만달러를 차입, 美로스앤젤레스에서 휴즈社와 위성 공급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日, 통신위성 「원격의료」 추진

일본 우정성은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산간벽지 등에 대해 최신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위성과 이동검진차를 이용한 「원격의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시스템은 X선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스캐너를 탑재한 순회검진차를 동원, 오지 환자의 X선화상등을 도시 의료시설로 전송, 전문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한다. 위성을 이용, 화상을 전송하는 원격의료는 일본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대규모 재해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우정성은 나가노縣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설정해 나가노縣 의사회, 신슈대학, 통신기기업체등과 「원격의료지원 위성통신시스템 실험추진연락회」를 발족했다. 산·관·학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99년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실용화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光케이블망을 이용해 정밀화상을 고속전송하고 있지만 산간벽지에는 이같은 설비가 오는 2010년께나 설치된다. 따라서 위성 과 순회검진차를 이용한 원격의료는 그동안 최신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의 의료혜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光케이블망은 지진등의 천재지변에 약하지만 위성을 통한 원격의료 시스템은 재해지역에서도 기동적인 진료를 가능케 해준다.

美 컬럼비아號 발사 성공

미국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號가 지난 2월 22일 오후 3시18분(현지시각) 美플로리다州의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

컬럼비아號는 이날 예정됐던 시간에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탈리아와 스위스인 조종사등을 포함,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14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비행에서 컬럼비아號는 이탈리아위성을 이용한 우주속에서의 발전과 무중력상태에서의 실험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컬럼비아號는 24일 오후 3시37분께부터(현지시각) 48시간동안 이탈리아 위성을 20km길이의 얇은 줄로 연결해 지구의 자장을 이용, 5천V의 전기를 발전할 계획이다.

아시아셋, 美 휴즈와 새 위성 계약

중국이 지원하는 한 홍콩 컨소시엄이 97년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될 주요 통신위성의 공급계약을 미국의 휴즈 스페이스 앤드 커뮤니케이션스 인터내셔널과 했다고 이 그룹이 지난 2월 26일 발표했다.

이 고출력 위성의 발주대금으로 지난 2월16일 JP모건·후지은행·파riba은행으로부터 2억2천만달러의 용자를 받은 아시아 위성통신회사(아시아셋)는 휴즈와 그 세번째 위성인 아시아셋-3의 제작과 궤도발사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15년 수명의 휴즈 11S 60111P모델이될 이 위성은 28개의 C-밴드 및 16개의 KU-밴드 고출력 트랜스폰더를 적재하게 된다.

이집트, 우주항공국 신설 계획

이집트는 인공위성을 제작, 발사할 우주항공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이집트 관리들이 지난 3월 1일 밝혔다.

이집트 내각은 현재 카이로 공과대학 미르바트 사와드 교수가 구상한 우주항공국 설치에 관한 법안을 심의중이라고 관리들은 전했다.

이집트는 국제적 명성이 있는 60명의 우주항공 과학자와 천문학자, 수백명의 항공전문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탈라트 함마드 내무장관이 밝혔다.

그는 또 이집트가 라디오 TV방송과 국방, 운수 부문등에 응용되는 각종 기초과학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우주항공산업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평가했다.

中, 인텔샷 폭발사고 피해 첫 공개

중국은 3월3일, 2월15일 발생한 인텔샷(국제산업통신위성기구) 위성폭발사고에 대한 비밀의 장막을 걷고 처음으로 이날 재앙으로 인해 모두 6명이 숨지고 80채의 가옥이 부서졌으며 로켓발사 계획의 후퇴가 불가피하게 됐음을 시인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다른 주요 언론들은 이날 남서부 四川省에서 발생한 위성폭발 사고에 대해 이같이 보도했다.

인텔샷, 亞·阿州지역 통신사업 확대

세계적인 상업통신 컨소시엄인 인텔샷은 앞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사업확대에 주력, 오는 98년까지 연간 10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이 회사 관계자들이 지난 3월 19일 말했다.

인텔샷의 어빙 골드스타인 사무국장은 이곳 방갈로르市에서 이사회를 마친뒤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同社가 곧 인도양 상공에 2개의 통신위성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위성은 고출력의 위성이라고 말하고 인텔샷은 통상적으로 2개의 위성이 배치되던 자리에 3개의 위성을 보다 근접하게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텔샷은 인도양지역의 위성통신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인도 봄베이에 지역센터를 개설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인텔샷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지역센터를 개설하는 것은 봄베이가 처음이다.

인텔샷은 오는 96년말까지 런던과 싱가포르·아프리카등지에도 지역센터를 잇달아 개설할 계획이다.

인도양지역의 위성통신서비스 수입은 2억4천7백20만달러로 인텔샷 전체수입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印, 천문학 실험용 원거리 감지 위성 발사

인도는 지난 3월21일 남부의 한 해안도시에서 천문학 실험 및 광물탐지를 위한 원거리 감지용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관리들이 밝혔다.

인도는 이날 오전 10시23분 벵골만의 스리하리코타市에서 15층 건물 높이(44m)의 로켓 PSLV-D3을 발사, 9백30kg짜리 인공위성 IRS-P3을 지구궤도 8백17km 상공에 올려놓았다고 인도우주연구기구가 전했다. 이번 위성은 인도과학자들에게 광·식물탐지, 생물자원, 사막화, 증발상태 및 우주폭발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틀랜티스-미르號, 세번째 도킹성공

美 우주왕복선 애틀랜티스號가 지난 3월 23일 러시아 우주정거장 미르號와 3번째 도킹에 성공했다고 美항공우주국(NASA)이 밝혔다.

두 우주선의 도킹은 이날밤 11시28분(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28분) 지구위 4백km 상공위에서 이뤄져 두 우주선의 출입문이 열리면서 우주비행사간 인사 및 선물교환이 있었다고 NASA는 덧붙였다. 애틀랜티스호는 승무원 6명 가운데 여승무원으로 생화학자인 샤논 루시드(53)는 미르號에 승선, 오는 8월까지 약 1달 보름동안 머물 예정이다.

또한 애틀랜티스號의 승무원 2명은 지난 3월 27일 오후(한국시간) 우주선 밖으로 나와 6시간 동안의 우주유영을 시작했다. 애틀랜티스號는 현재 러시아 우주정거장 마르號와 결합돼 있으며 이같은 상태에서 승무원이 우주유영을 시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승무원은 유영기간중 우주궤도를 선회하는 파편들이 미르號의 외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수집을 위해 실험을 실시했다.

에틀란티스號와 「미르」는 지상 3백94km 상공을 선회했다.

美, 군용GPS 민간개방 확대

빌 클린턴 미국행정부는 지난 3월 29일 지금까지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돼온 첨단위성항법장치(GPS)의 민간상업분야 사용영역을 대폭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앨 고어 美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성항법장치의 개방을 확대하더라도 군사보안유지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美정부의 이번 조치로 현재 10억달러규모의 위성항법장치시장이 4년뒤에는 80억달러규모로 성장하게 될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지역을 중심으로 10만개의 새

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상에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데 위성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산기만한 크기의 장치만 있으면 록키산맥을 등산하거나 체서피크灣을 항해할 때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美국방부는 군사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용 위성항법장치의 경우 신호의 질을 일부러 떨어뜨려왔으나 이번 조치로 그 같은 관행을 앞으로 4~10년뒤에는 전면 중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항공기·기차·트럭·앰블런스·유조선은 물론 등산객들까지도 보다 정확도가 높아진 위성항법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